

# 7080 남도 생활상... 정겹거나 씩씩하거나

광주롯데갤러리 나경택 사진전 '남도연가'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40년 사진기자 생활중 찍은  
남도 일상 담은 80여점 전시



나경택



옛 초등학교 학생들의 궤기대회.(1970)

‘형님들은 짧은 머리, 언니들은 긴 치마’ ‘단정한 몸차림 밝은 사회 이룩된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1970년대 초등학교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학생들은 ‘히피족이 나라 망친다’, ‘엄마 아빠 사치 속에 병들고 있는 우리 가정’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롯데갤러리가 7일부터 11월2일까지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으로 나경택 사진전 ‘남도연가’를 연다.

1967년 옛 전남매일에 입사, 사진기자로 활동한 나경택씨가 광주일보, 연합뉴스를 거치며 40년간 남도 현장을 담아낸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2007년 저서 ‘앵글과 눈동자’ 출간 이후 10년 만에 여는 전시다. ‘5월의 기록자’로 알려진 그는 5·18 관련 사진보다는 일상의 모습들을 주로 출품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남도 생활상을 담은 미공개 사진도 선보인다.

출품작에서는 시대와 사람, 옛 감성을 만날 수 있다. 197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촬영한 북동성당 사진에는 눈이 오는 가운데 통기타를 거꾸로 들고 좋아하는 고교생이 등장한다. 5·18을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1971년 옛 전남매일신문사 앞에서 촬영한 우산정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산이 이상없나 퍼보는 손님 모습은 지금 우리네와 다르지 않다. 작품 ‘카바레에서 춤바람 난 부인 들’(1970)

에는 군사 정권 시절, 대낮에 카바레 등에서 비밀리에 춤을 추다 적발된 주부와 유부남들이 등장한다. 치마저고리를 차려 입고 아이를 업은 주부,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남성들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1978년 12월 촬영한 제 10대 총선 유세현장에서는 막걸리가 눈에 띈다. 지금이라면 선거법에 위반되었지만 당시에는 흔한 모습이다. 또 농성초등학교 사진(1979년)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복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되는 사진이다.

1971년 9월 새마을운동 사진에서는 신안군 사지도 주민들이 돌을 옮겨 방파제를 쌓는 풍경이 수록됐다. 승객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는 만원버스 안내양, 양동시장 얼음배달부, 소와 사람이 함께 건너는 장성 징검다리, 찢어진 교복과 밀가루를 뒤집어 쓴 졸업식 풍경 등도 만날 수 있다.

아산 조방원, 오지호·오승운 부자, 석성 김형수 선생 등 유명 작고 작가의 생전 모습도 볼 수 있다.

나씨는 ‘용기 있는 기자상’(1990·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제22회 한국기자상(보도 부문), 1994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에는 자신이 촬영한 5·18 광주민중항쟁 기록 사진(흑백필름 2017컷)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의 062-221-1807.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1971년 촬영한 광주주대부고 졸업식 풍경.



경찰의 카바레 단속에 적발된 남녀들.(1970)

황영성·박석규·송·송·박동인·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은태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 ‘4만3000송이의 꿈’

광주공고 총동창회 6~12일 개교 70주년 기념전



조동희 작 '무궁화'

광주공업고등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가 학교와 갤러리D에서 ‘4만3000송이의 꿈’을 주제로 동문작가 초대전을 6~12일 연다. 주제에는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고 4만3000 동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는 3회 졸업생부터 52회까지 서양화, 한국화, 조소, 서예, 문인화 등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동문 20명이 참여했다.

무궁화 작가로 유명한 조동희씨는 작품 ‘무궁화’를 선보인다. 기개와 강건함이 느껴지는 큼직한 꽃잎 옆에 무궁화에 대한 단상을 시로 써놓았다.

김중수 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장은

‘법성포화와 갯벌’을 출품한다. 노랑, 빨강, 파랑으로 채색한 갯벌과 바닷가마음은 서정적인 남도 분위기를 전해준다. 학창시절에 고문 이론론 작가는 ‘박학독지(博學篤志)’ 속에 작품으로 후배들에게 꿈과 기상을 심어준다.

그밖에 광주민족미술협회장을 역임한 박철우 작가가 그린 ‘강이 시작되는 곳’ 등 지역 유명 작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1946년 개교한 광주공고는 2014년 스위스 도제직업교육 운영학교 선정, 2013년 NCS기반 실전·창의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문의 062-222-8011.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흙을 빚고 삶을 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16일까지 도예가전



심재천 작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양효섭)은 올해 대극장 옆 리셉션장에 갤러리를 오픈하고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4명의 작가를 초청, 생활과 예술을 넘나드는 도자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흙을 빚고, 삶을 담다-도자’ 전(16일 까지)을 준비했다.

동경 예술대학에서 공부한 김병울(단국대 도예과 교수)씨는 생명의 태동을 상징하는 ‘씨앗’을 테마로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심천요를 만든 도예가이자 선진(故) 김경중 선생을 사사한 김진현씨

는 한국적인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신미영(한양여대 도예과 교수)씨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운 풍경, 여행 추억의 시간들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화실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심재천씨는 실용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창작 도자를 전시한다.

관람 시간은 공연 없는 날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 무료.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나만의 여행 로망 '테마 여행'이 뜬다

우주, 건축, 예술 찾아 떠나는 그들 '남아공 대자연 속에서' 특별한 여행 이흥재 주필의 인도여행기

기획: 파키스탄 편잡 히말라야 낭파르브 원정기  
- '산중의 왕' 낭파르브 가는 길-  
- 박종석 화백의 산행일기

신종추: 한글날 기획  
손맛글씨 작가와 나는 아름다운 한글 이야기

예행이 만난 이 사람  
작품 기증에 조각공원 만든 조각가 정은태  
한시선집 '고시원' 완역 양희석·김희경  
리더십과 실력 보여준 KIA타이거즈 이병호

남도美味樂: 여수  
'어수 빙바다' 낭만과 미항의 열정

예향 초대석: 아프리카에 생명의 망고나무 심는 해남 출신 패션디자이너 이광희  
남도의 장인들: 소박하고 견고한 나주반 도살린 소반장 김춘식

사람이 브랜드다: 향일과 예술로 중국 대륙을 울린 음악가 정웅성

다도재를 가다-유림 위대한 섬 이야기: 생대-민속 체험의 섬 네덜란드 아멜란트

전시회제: 행촌미술관 광주비엔날레기념전 '해남,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편견에 눈을 흘리는 '웃음의 광대' 코미디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비애

문학 화제: 문림 장흥의 강수성 담아 밝힌 '장흥문학길'

지역축제 가을이라 더 맛있고 풍성한 남도 축제

스타 데이트: '이번에도 생계형, 그러나 시이다 매력 캐릭터조' SBS '질투의 화신'으로 돌아온 '공블리' 공효진